

제 249호 · 2014년 3월 26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글로벌물류이슈

1.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물류업 수직통합 동향

물류정책·사업동향

1. 미 FMC, P3 네트워크 승인했으나 반독점 모니터링 기능은 강화예정
2. 중국, 물류부동산 부지에 대한 거래 증가 예상
3. 영국 제조기업 생산시설 자국복귀 증가
4. 지린성, 한국 러시아 대상 동북아 자유무역지구 건설

물류시장동향

1. Maersk, 연기된 브라질 항만 개발 입찰 사업에 관심
2. 중국 우후(蕪湖)시 철도 물류단지에 4억 650만 달러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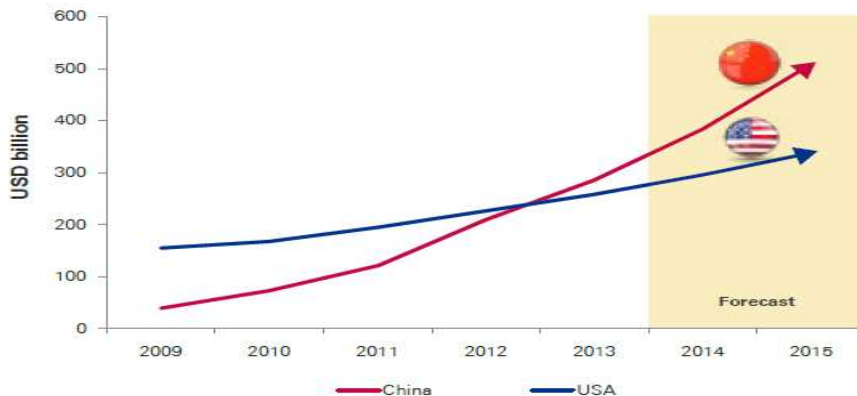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글로벌물류이슈

□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물류업 수직통합 동향

- 중국 정보경제학회 상무이사 량춘샤오(梁春晓)씨에 따르면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약 50조 위안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2012년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약 8.2조 위안이었으나 2020년에는 2010년의 10배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¹⁾
 - 2013년 인터넷 사용인구는 6억 1,8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세계 최대 인터넷 사용인구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5년간 20%가 넘는 고속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
 -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2013년 기준 45.8%를 기록하였는데,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 84%와 미국의 81%에 비교할 때 인터넷 보급률은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며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 사용 인구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임²⁾
- 중국의 초기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사용자도 적고 시장 규모도 작았으나 2009년 이후로 급속도로 성장하여 미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를 추월
 - 2020년의 중국 시장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및 프랑스를 합친 것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³⁾

< 중국과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비교(2009-2015) >



자료 : KPMG, "E-commerce in China: Driving a new consumer culture", 2014.1.

-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인 타오바오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96%를 차지
 - 타오바오왕(tabao wang, 淘宝网)은 알리바바(阿里巴巴)그룹 산하의 C2C 플랫폼이며 시장점유율 90%를 차지⁴⁾

1) 중화공상시보, 2014.2.27.

2) KOTRA 글로벌원도우, "중국, 2014년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시장으로 성장", 2014.1.23.

3) KPMG, "E-commerce in China: Driving a new consumer culture", 2014.1.

-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에 그치지 않고 물류업까지 진출
 -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규모의 성장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시 배송될 수 있도록 물류분야까지 진출
 - 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전 회장은 순펑(顺风), 중국우정(邮政), 원통(圆通), 선통(申通), 윈다(韵达) 등 중국 유수의 택배사와 공동출자해 설립한 차이나온인터넷과학기술유한공사(菜鸟网络科技有限公司)를 통해 스마트업⁵⁾에 진출
 - 아울러 알리바바는 중국 가전업체인 하이얼(海尔)그룹에 총 28.22억 홍콩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이얼 그룹의 자회사 물류 기업인 르르순(日日顺)과 협력
 - 이를 계기로 알리바바는 하이얼의 공급관리, 물류창고, 배송 및 전자제품의 설치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의 배송 효율성 제고 가능
 - 르르순은 중국의 3,4선 시장⁶⁾에 7,600개의 전문점을 비롯해 농촌에도 2만 6,000여개의 전문점을 갖고 있어 마윈이 목표하는 중국전역을 대상으로 한 당일배송 시스템 실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⁷⁾
 - 이외에 알리바바는 물류서비스에 대한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협력업체의 홍보와 배송 범위 및 가격 등을 공시하여 입점기업이 물류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알리바바의 물류서비스 홈페이지 >

为您推荐线路

出发地	到达地	城市名(中文/拼音)	价格
东莞市	大连市	1.00元/公斤	230元/立方
广州市	广州市	0.60元/公斤	105元/立方
深圳市	徐州市	0.75元/公斤	170元/立方
深圳市	天津市	1.18元/公斤	252元/立方
深圳市	北京市	2.19元/公斤	548元/立方

热门线路

出发地	到达地	城市名(中文/拼音)	价格
深圳市	上海市	0.44元/公斤	120元/立方
深圳市	苏州市	0.44元/公斤	120元/立方
深圳市	成都市	0.78元/公斤	196元/立方
深圳市	广州市	0.20元/公斤	50元/立方
深圳市	深圳市	0.27元/公斤	45元/立方

자료 : 阿里巴巴物流服务, http://56.1688.com/?tracelog=portal_saaswuliu0622, 2014.3.24.검색

- 최근 알리바바는 중국 물류기업인 深圳市一达通(Yidatong, Onetouch)⁸⁾의 전 자산을 매입하면서

4) KOTRA 글로벌도우, "중국, 2014년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시장으로 성장", 2014.1.23.

5) 물류시스템의 정립 개선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공동 발전을 기점으로 전국범위의 물류창고기지인터넷망을 구축

6) 주로 부동산시장에서 사용된 용어로 지금은 도시의 종합경쟁력을 나타내는 개념임 1선 : 베이징, 상하이 등 2선 : 난징, 우한, 청두 등 칭다오, 3선 : 인촨, 시닝, 하이커우, 창저우, 4선 : 타이저우, 타이창, 장지아커우, 선지양 등

7) 포스코경영연구소, "Chindiaplus", 2014.2., Xinhuaheji, 2013.12.24.

8) 심천시정부와 합작하여 설립된 물류기업으로 영문 기업명은 Onetouch임

국제물류 분야에도 진출

- Yidatong을 통해 통관, 운송, 보험, 외환업무, 세금환급, 융자, 상품검수 등의 전반적인 수출입 업무를 처리하며 알리바바 입점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에도 기여⁹⁾
- 이러한 수출입 종합물류서비스도 알리바바가 제공 가능하기 때문에 입점기업의 해외 진출 또는 해외 소매상(도매상)들의 중국 진출 등이 용이해졌으며 절차의 간편화 및 비용 절감으로 입점 기업들의 사업운영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협력 물류기업들의 물량증가에도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알리바바는 미국 전자상거래시장 진출과 미국 물류업체 인수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
 - 알리바바의 미국내 자회사인 벤디오와 옥티바가 11메인(11Main)이라는 쇼핑몰을 선보일 예정¹⁰⁾
 - 아울러 지난해 8월 미국의 인터넷 물류 배송 서비스업체인 Shop runner에도 투자¹¹⁾
 - 중국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물류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단순한 전자상거래를 넘어 물류서비스 까지 제공할 수 있는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
- 특정 화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물류기업의 경우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지만 경쟁 화주기업의 물량 처리 및 신규 분야 진출을 통한 사업 확장에는 어려움 예상
- 그러나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알리바바와 관련된 물류기업은 당분간 고속 성장
 - 이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습득한 노하우, IT 기술을 물류분야에 적용하게 될 경우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알리바바의 경우 대규모 자본력으로 물류기업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또는 전 자산을 매입하면서 자사와 관련된 상품의 국내물류유통과 국제물류까지 일괄처리
- 이처럼 모기업을 화주기업으로 두고 있는 신규 물류기업들이 진입하면서 물류업의 경쟁구도는 이전의 전통적인 물류기업간의 경쟁이 아닌 전통적인 물류기업과 종합(그룹)기업들이 동시에 경쟁하는 구도로 재편될 전망
- 중국에 진출한 물류기업은 전자상거래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맞춤형 수출입 통관 서비스까지 수행하거나 특화된 서비스를 갖추어야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전망

전혜경 연구원 (☎ 02-2105-2982, saeii@kmi.re.kr)

송주미 전문연구원 (☎ 02-2105-2872, jmsong@kmi.re.kr)

9) KMI 국제물류위클리 248호 참고

10) Xinliangkeji, 2014.2.11.

11) Xinliangkeji, 2013.8.17.

물류정책 · 사업동향

□ 미 FMC, P3 네트워크 승인했으나 반독점 모니터링 기능은 강화 예정

- 미국연방해사위원회(FMC)는 4대1의 투표를 통해 P3 네트워크가 2분기에 출범하는 것을 승인하고, P3 선사들과 관련된 선박공유협정(VSA, Vessel Sharing Agreement)을 모니터링하는 새로운 보고 체계를 수립할 것을 결정
 - FMC 위원인 Richard Lidinsky씨는 머스크라인, MSC, CMA CGM에 의해 체결된 선박공유협정(VSA)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
 - FMC는 세계 3대 선사들의 아시아~유럽항로, 태평양항로, 대서양항로에서의 VSA로 운임이 터무니없이 인상되거나, 서비스수준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승인
 - FMC 위원인 William Doyle씨는 P3 네트워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독점 조사를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성명서에서 언급
- FMC 위원장 Mario Cordero씨는 향후 P3 네트워크가 운임을 인상하고 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P3 네트워크의 사업 진행사항을 감시하는 새로운 보고 체계를 수립할 것을 지시
 - 새로운 모니터링 프로그램 하에서 P3 선사들은 정기적으로 운항, 스케줄, 프로세스와 업무 규칙에 대한 FMC 보고 의무화
 - P3 선사들은 평균 주간 선복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항 취소, 서비스 변경사항들에 대해서도 FMC에 미리 보고 필요
 - 또한 FMC는 선복량을 변경하는 행위, 경쟁을 위협할 수 있는 제3자(터미널운영사, 하역사, 서비스 공급자 등)와 관련된 운임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언급
 - 그리고 P3 선사들은 개별 선사들의 독자성 및 네트워크 운항센터(Network Center)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정보도 FMC에 제출 필요
- P3 이외 선사들은 P3 네트워크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 환적 허브를 통해 서비스를 축소시키고 소규모 선사들을 배척할 것이라고 FMC에 반대의견을 제출
 - FMC에 따르면 P3 네트워크는 아시아~유럽항로 선복량의 42%, 태평양항로 24%, 대서양항로 40~42% 점유
 - 그리고 P3 네트워크 선사들은 소수의 대형 선박으로 서비스를 통합함으로써 컨테이너당 비용을 낮춰 소형 선박에 의존하는 다른 선사들에 비해 비용 우위 확보
- 이에 대해 P3 선사들은 본질적으로 선박 운항에만 관여하며 P3 네트워크는 운항 취소 건수를 줄임으로써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언급

- P3 네트워크는 유럽연합(EU)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EU측에서는 향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P3 선사들로부터 정보를 수집 중
- EU는 P3 네트워크가 인수 합병으로 간주되지 않아 유럽에서 공동행위 금지 등의 즉시 효력은 힘들지만 EU 협정 10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
 - 운송·우편·기타서비스의 반독점 국장인 Hubert de Broca씨는 작년 말에 유럽의 규제 당국이 언제든지 P3네트워크가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101조¹²⁾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
- 중국 규제 당국의 P3 네트워크 승인 여부에 대한 입장은 불분명
 - 이는 중국 중앙정부가 국영기업인 COSCO와 China Shipping의 협력 확대를 추구하는 등 자국선사 보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

자료 : www.joc.com, 2014.3.20.

이언경 전문연구원 (☎ 02-2105-2919, eklee@kmi.re.kr)

12) 카르텔과 같은 경쟁제한적 합의 또는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

□ 중국, 물류부동산 부지에 대한 거래 증가 예상

- 중국의 물류부동산 시장은 급성장 중이며, 2029년 2.5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 잠재력 보유
 - Colliers International¹³⁾에 의하면 중국의 창고와 배송센터에 대한 총 투자금액은 2013년 5억 2,000만 달러로 연간 38.8% 성장하였으며, 거래건수도 85.7% 증가
- 세계 2대 경제대국인 중국이 앞으로 수출보다는 내수시장에 보다 중점을 둘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약속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당일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물류시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전망
 - Global Logistic Properties¹⁴⁾는 중국의 1인당 물류공간이 미국의 1/12에서 2029년 1/3까지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중국의 물류 부동산 시장이 향후 15년 간 2조 5,000억 달러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
 - 2013년 중국에서 Global Logistic Properties사의 임대면적 80%가 모두 내수소비와 관련되었으며, 특히 임대면적의 22%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됨¹⁵⁾
- Colliers International은 2014년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Alibaba와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Tencent의 물류시장 진입에 따른 영향을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밝힘
 - 2013년 5월, Alibaba는 '중국스마트물류네트워크(CSN, China Smart Logistics Network)' 구축 사업을 맡을 Cainiao라는 기업¹⁶⁾을 신설하였으며, 161.8억 달러를 CSN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
 - 아시아 최대 인터넷 업체이기도 한 Tencent는 2014년 3월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인 JD닷컴(JD.com, 京東)¹⁷⁾의 지분 15%를 2억 1,500만 달러에 인수
- 투자자들이 소비주도형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 올해에도 물류부동산 거래의 급등이 전망되며, 중국 본토 물류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국 및 외국 투자자들, 특히 중국 보험회사와 은행들의 관심 증가
 - 다만 중국 지방정부가 물류산업에 부지를 할당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 부지확보 문제가 가장 큰 장애물
 - 이에 Global Logistic Properties사는 부지 확보를 위해 3개의 중국 금융회사(China Life Insurance, Bank of China, Hopu Investment Management)와 25억 달러의 지분계약을 체결

자료 : www.cargonewsasia.com, 2014.3.19.

김은우 전문연구원 (☎ 02-2105-2828, hisgrace@kmi.re.kr)

13) 국제적 부동산 컨설팅 회사.

14)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GIC가 가장 큰 단독 주주로 싱가포르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상하이에 본부를 두고있음.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창고 및 배송센터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계 물류부동산 회사.

15) 2013년 Global Logistic Properties의 10대 주요 고객은 Amazon, Vipshop, Vandel, JD.com과 같은 전자상거래 기업.

16) Yintai Holdings, Fosun Group, Forchn Holdings 및 YTO Express (Logistics) Co., S.F. Express (Group) Co., ZTO Express Co., Yunda Ltd. and Shentong Express Co. 등 다섯 개 주요 특송업체와 공동으로 설립하였으며, 자본금 규모는 50억 위안.

17) JD.com은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이며, 빠른 배송으로 1억 4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

□ 영국 제조기업 생산시설 자국복귀 증가

- 과거 보다 인건비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저개발 국가로 진출했던 영국기업 생산시설의 자국복귀가 점차 증가
 - 최근 3년간 영국 기업 6개 중 1개 꼴로 생산시설 자국 복귀
 - 이는 영국의 생산부문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기존 공급사슬에는 다양한 영향 예상
- 글로벌 공급사슬은 더욱 복잡해지고, 중국 등 저개발 국가의 인건비는 점차 상승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시설 본국이전 가속화
 - 특히 이러한 현상은 내수경기 회복이 시작되어 외국으로부터의 구매원가 감소 및 제품 출시 기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진 국가에서 주로 발생
 - 최근 불황에서 탈출하기 시작한 영국의 기업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자국복귀 추진
-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생산할지, 아니면 외주를 줄지에 대한 정책결정에서 종종 근시안적이고 부적절한 우선순위에 따라 판단
 -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일반적으로는 생산시설 이전에 따른 기회와 위기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공급사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시설 본국 이전이 종종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에 근거하여 결정
- 따라서 물류전문가들은 당장의 외부 추세에 따라 반사적으로 복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자사에게 가장 알맞은 대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
 - 외주, 근거리 외주, 제조시설 자국복귀 등 어떤 계획이든 자사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검토, 적절한 결정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기업은 공급사슬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통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기반으로 자사의 어떤 제품을 어디서 생산할지 결정 필요
 - 또한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제품과 생산능력 면에서 자사의 주요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파악 필요

자료 : container-mag.com, 2014.03.11.

전형모 전문연구원 (☎ 02-2105-2817, hmjeon@kmi.re.kr)

□ 지린성, 한국 러시아 대상 동북아 자유무역지구 건설

- 지린성 정부는 창춘(長春)에 한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지구를 건설하여 대외 수출입 화물을 증대시킬 예정임
 - 동북아 자유무역지구로 선정된 창춘쌍룡종합보세구(長春興隆綜合保稅區)는 2011년 12월 국무원에 승인된 지린성 첫 번째 국가급 종합보세구로 장춘시 동북부에 위치하며 총 면적은 약 4.89m²로 보세가공구, 보세물류, 항만작업 및 종합물류서비스 등 4대 기능으로 구분
- 창춘쌍룡종합보세구는 교통시스템이 완비된 창춘경제기술개발구 내에 위치하고 있음
 - 창춘룡자(龍嘉)공항과 10km 떨어져있으며 101성급 도로, 102 국도, 공항대로, 창춘고속도로, 창춘시 컨테이너철도역 및 창춘쌍룡산 기차역과 인접
 - 이 밖에도 하다선(哈大線)¹⁸⁾과 창지투(長吉圖)¹⁹⁾철도와 인접하여 다렌, 잉커우까지 4~6시간 소요
- 현재까지 쌍룡보세구 및 배후단지 지역에 국제물류허브 건설을 위한 36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춘의 물류체계 변화 추진
 - 지린성 정부는 생산가공, 국제무역, 현대물류, 종합서비스 등 4대 기능을 포함하며 총 24.4억 위안을 투자할 전망
 - 현재 수출입액은 약 12억 달러로 5년 내에 5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주기업을 100개 이상 유치해 3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 중국 정부의 동북지역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향후 지린성 또한 러시아, 남북한 외에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기지로 거듭날 전망
 - 현재 한국과 동북 3성²⁰⁾의 무역액은 약 104억 달러로 전체 무역액의 6%에 불과하며, 향후 한국과의 수출입 화물 물동량을 증대시킬 계획
 - 러시아 연해주 및 한국 이외에 북한, 일본 등지를 연결하는 '동북벨트'를 건설하기 위한 동북 지역의 대외개방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18) 하얼빈-다렌간 철도노선

19) 창춘-지린-두만강간 철도노선

20)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지린성

<창춘쌍룡종합보세구>



자료 : 바이두(<http://www.baidu.com/>)

자료 : www.port.org.cn, 2014.3.7.

박여진 연구원 (☎ 02-2105-2967, yjp06@kmi.re.kr)
이주호 부연구위원 (☎ 02-2105-2890, jooho@kmi.re.kr)

물류시장동향

□ Maersk, 연기된 브라질 항만 개발 입찰 사업에 관심

- Maersk는 브라질 남부에 있는 터미널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측에 지연된 사업들에 대한 입찰 개시를 요구
 - 브라질은 남미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가진 국가이나 물류 인프라는 열악하여 물류사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
 - Maersk의 브라질 법인 대표는 브라질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찰개시를 시작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
- Antonio Henrique Silveria 항만청장은 연방 회계감사원의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금년 상반기에는 지연된 항만개발 사업 입찰을 진행 시킬 것이라고 밝힘
 - 이는 낙후된 항만설비와 항만의 적체현상으로 인한 원활하지 않는 물류흐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반영한 것

자료 : www.hellenicshippingnews.com 2014.3.22.

전혜경 연구원 (☎ 02-2105-2982, saeii@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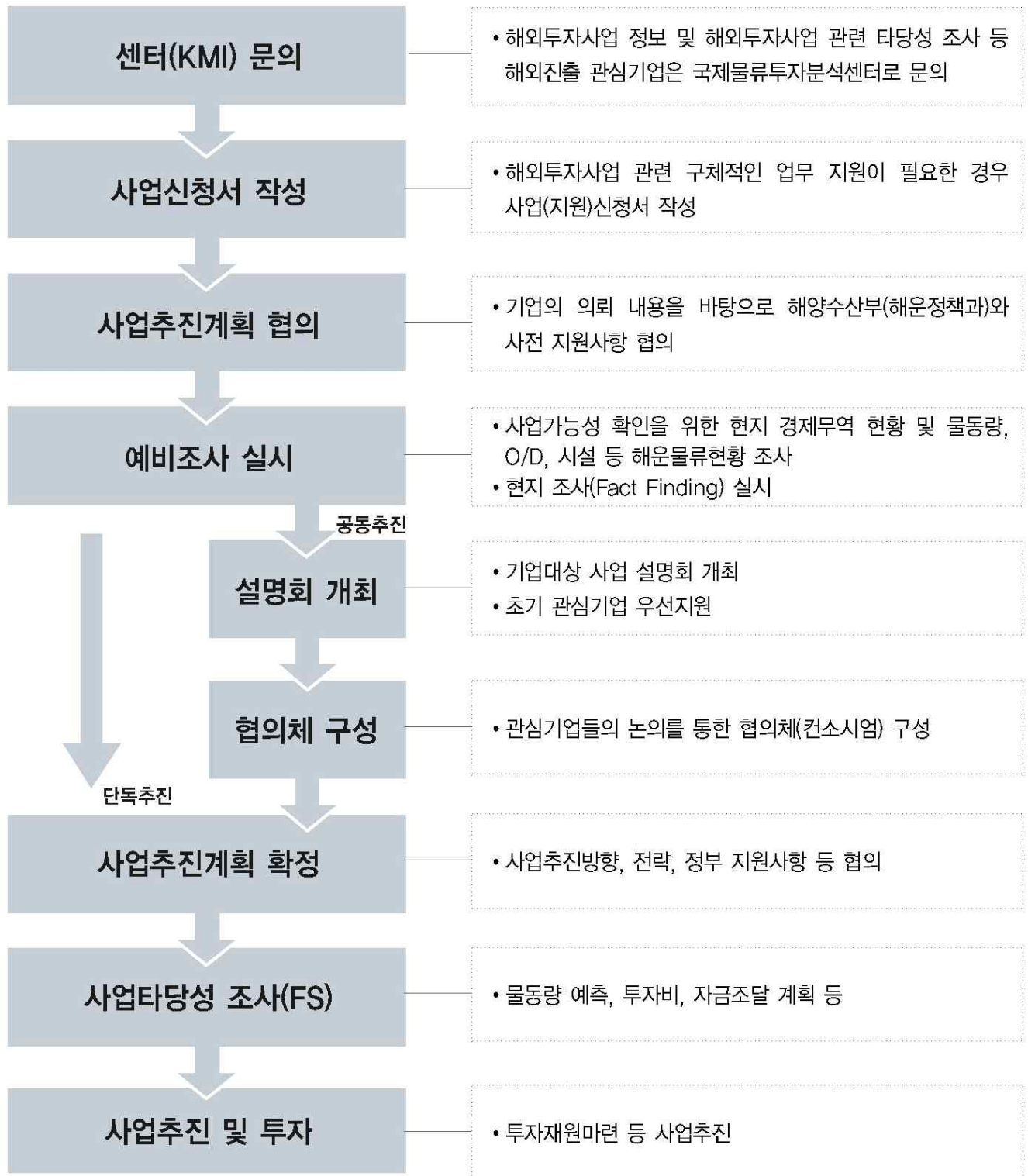
□ 중국 우후(蕪湖)시 철도 물류단지에 4억 650만 달러 투자

- 중국 동부 안후이성 우후시는 쑤산(三山) 지역에 25억 위안(약 4억 650만 달러) 규모의 '우후 철도 종합 물류센터' 건설 계획 수립
 - 이 물류단지는 Shanxi PORTINT International Logistics와 중국 투자회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총 3단계에 걸쳐 건설될 예정
 - 1단계 사업으로는 4km 길이의 철도 건설과 10만m² 크기의 운영 플랫폼, 벌크 및 컨테이너 야드, 2만m² 크기의 창고와 기타 보조 시설이 세워질 예정으로, 2014년 상반기 건설이 시작되어 2015년에 완공
 - 2단계 사업으로는 사무실과 전자무역, 정보/지능화 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3단계 사업으로는 16만m² 규모의 고단적재 창고, 2만m² 크기의 수출용 표준 냉동창고, 2만m² 크기의 일반 창고를 건설
 - 물류단지가 완공되면, 한곳에서 마케팅, 금융, 유통, 운송, 하역, 가공 및 보관과 같은 종합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

자료 : www.gctf8.com, 2014.3.10.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